

정부 비판하던 그리스 공영방송 폐쇄, 언론에 재갈 물리기인가 효율성 위한 조치인가?



글. 김미경
서울신문 국제부 차장

2013년 6월 11일 오후 11시쯤(현지시각), 그리스의 유일한 공영방송 '엘리니키 라디오포니아 텔레오라시'(Elliniki Radiofonia Tileorasi · ERT · 그리스 라디오 텔레비전)의 송출이 갑자기 멈췄다. ERT의 TV 채널 화면들은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No Signal'이라는 문구만 흘러나왔다. ERT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됐고, 소속 직원 2,600여 명은 한꺼번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75년 전통의 그리스 공영방송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스 공영방송 ERT 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
(출처 : The independent, 「We will not go to new elections: PM offers talks after silencing of state-run broadcaster ERT shocks Greece」,
2013년 6월 13일자)



그리스 정부, 공영방송 ERT 폐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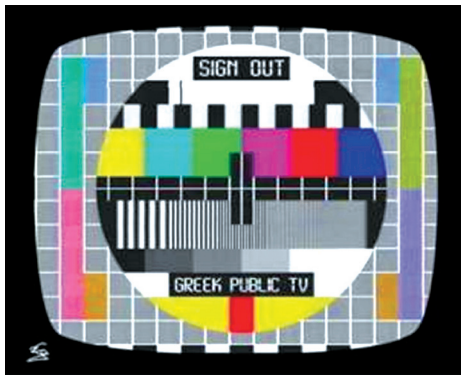
심각한 경제난으로 ‘유로존 위기’까지 몰고 온 그리스는 지난 3년간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정부 주도로 긴축 재정을 단행해 왔다. 그리스 관련 최근 뉴스는 대부분 정부의 긴축 재정 추진과 그에 대한 민간의 저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그리스 정부의 ERT 잠정 폐쇄 소식은 그리스 연합정권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보도나 뉴스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의 ERT 폐쇄 조치의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이 전개된다. 정부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내년까지 1만 5,000명을 감원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ERT와 정부의 정치적 이유, 공영방송의 존재와 역할이라는 미디어적 관점이 뒤엉켜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ERT 폐쇄 발표가 있었던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시모스 케디코글루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6월 11일 오후 5시 45분쯤 안도니스 사마라스 총리의 성명을 대독했다. 케디코글루 대변인은 “ERT는 다른 민간 방송사에 비해 운영비는 3~7배가 들고 인력은 4~6배가 많으면서도 시청률은 다른 방송사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ERT는 불투명한 경영과 낭비의 천국이었지만 이것도 오물로 끝이다”라며 ERT의 문을 닫는다고 선언했다. 케디코글루 대변인은 또 “ERT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쓰레기’의 전형”이라며 ERT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대변인 성명이 발표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ERT의 송출이 전격 중단됐다. ERT가 운영하는 ET1 채널은 시위 현장을 중계하는 뉴스를 전하던 도중 끊겼고, NET 채널은 ERT의 역사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며 최후를 알렸다. ERT의 한 기자는 송출 중단 직전 방송에 나와

“정부의 쿠데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2일에는 ERT가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방송도 멈췄다.



송출이 중단된 ERT ET1 채널
(출처 : InsideGreece, 「ERT off air : Thought for the day」,
2013년 6월 12일자)

정부의 이날 ERT 폐쇄 발표는 사전에 어떤 예고나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파를 던졌다. 정부는 의회에서의 논의나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합법적인 특별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ERT 직원들과 노조, 상급 노동단체 등의 저항을 피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급증한 부채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그리스는 2010년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왔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 4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내년까지 1만 5,000명의 공공부문 인력을 추가로 감축한다

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첫 번째 타깃으로 ERT 소속 직원 2,656명이 ‘선정’된 것이다.

1938년 그리스라디오재단(EIR)으로 개국해 1965년 TV 시험방송을 거쳐 이듬해 ET1, NET, 1988년 ET3 TV 방송을 시작하는 등 3개 전국 지상파 TV 채널과 2개 HD·위성 채널, 6개 라디오 채널 등을 운영해온 ERT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점령당해 중단된 적을 제외하고는 지난 75년간 꾸준히 방송을 이어왔다. 시청료와 라이선스 비용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추가 예산이 필요해 정부로부터 전체 운영비의 약 25%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았다.

공영방송 폐쇄에 대한 저항

ERT의 폐쇄 소식이 알려진 날, ERT 직원들과 노조는 물론 시민 수천 명이 아테네 시내 ERT 방송국 앞으로 몰려와 ERT 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세금 부담 등에 반발해온 이들에게 ERT 폐쇄는 직원 2,600여 명 해고 이상의 의미였다. 구조조정으로 유일한 공영방송까지 폐쇄되는 상황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이다.

ERT 폐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컸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



수천 명이 모인 ERT 본사 앞 시위 현장(출처: itv, 「Greeks strike over state TV」, 2013년 6월 13일자)

민들은 사마라스 총리의 퇴진을 촉구했다. 또 버스와 철도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ERT 노조의 요청에 따라 하루 총 파업에 돌입했다. ERT가 운영하는 2개의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인들도 ERT 빌딩 앞에서 정부의 폐쇄 조치에 항의를 표시하는 릴레이 연주회를 개최했다. 그리스 현지 일간 에펜디티스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ERT 잠정 폐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유럽방송연맹(EBU)도 그리스 정부에 ERT 방송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 폴 필리포 노조위원장도 “방송국의 문을 닫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라며 “ERT의 문을 다시 열고 방송 신호 송출과 인터넷 연결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ERT와 같은 공영방송인 영국 BBC도 ERT 방송 재개 촉구에 가세했다. BBC 토니 홀 사장은 그리스 정부에 ERT 방

송을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리스 정부의 갑작스러운 ERT 폐쇄 조치는 “비민주적이고 전문가답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리스 정부에 방송 재개를 촉구한 BBC 토니 홀(Tony Hall) 사장
(출처: the guardian, 「ERT: BBC director calls on Greek government to reopen broadcaster」, 2013년 6월 13일)

BBC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등 50여 유럽 방송사 대표들은 유럽방송연맹을 통해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공공 서비스 미디어의 존재와 정부로부터 그들의 독립은 민주

주의 사회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문제로 번진 ERT 폐쇄 사태

노조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ERT 폐쇄는 정치권으로 불뚝이 튀었다. 야당인 좌파 정당 시리자당은 물론, 3당 연합정권(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중도 좌파 사회당과 민주좌파당도 ERT 폐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수 집권 세력인 우파 정당 신민당이 연정 파트너들과도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감과 함께, 국민들의 반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알렉시스 시프라스 시리자당 당수는 “ERT 폐쇄는 명백한 불법이며 정부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승인 없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회당과 민주좌파당 당수들도 성명을 내고 “ERT 폐쇄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케디코글루 정부 대변인은 6월 11일 ERT 폐쇄 성명 발표 후 “새로운 공영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가급적 빨리 만들어져 방송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2일 “ERT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방송국으로 재개국하게 될 것”이라며 “재개국시 (해고된) 일부 직원은 다시 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RT의 뒤를 이을 ‘새롭고 깨끗한’ 방

송 NERIT(새로운 그리스 라디오 인터넷 텔레비전)을 8월 말 개국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자 사마라스 총리도 14일 “비상위원회를 꾸려 (해고된) 일부 필수 인력을 다시 고용해 ERT를 대체하는 소규모 방송국을 만들어 일부 프로그램을 방송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ERT 직원들은 물론, 연정 파트너들로부터도 부정적 반응을 얻었다.



그리스 총리 안도니스 사마라스(출처: 호주 ABC, 「Greece's Democratic Left party quits ruling coalition after state TV channel ERT closed down」, 2013년 6월 22일자)

연정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연정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다급해진 사마라스 총리는 17일부터 연정 파트너들과 협상을 시작했다. 1차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연정 대표들은 19일 2차 회의를 열고 3시간 30분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어 20일 열린 3차 회의에서도 사마라스 총리는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당수와 포티스 쿠벨리스 민주좌파당 당수와 만나 ERT 문제 등을 협의했

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송을 재개하라는 사회당과 민주좌파당의 요구에 사마라스 총리는 “ERT를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며 버틴 것이다.

쿠벨리스 당수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없었다”며 “(정부의 ERT 폐쇄 결정은) 합법성 문제였는데 우리는 정부의 적법하지 않은 조치에 의견을 달리 했다”고 밝혔다. 베니젤로스 당수는 “그리스는 다시 매우 중대한 상황에 처했다”며 연정 유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왼쪽부터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당수, 포티스 쿠벨리스 민주좌파당 당수, 안도니스 사마라스 총리
(출처 : Greek Reporter, 「Greek Court Leaves ERT, Coalition In Limbo」, 2013년 6월 18일자)

연정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좌파당은 21일 연정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민주좌파당의 연정 탈퇴 소식에 그리스 주식시장은 전일 대비 6.11%나 급락했다. 민주좌파당의 탈퇴로 연정에는 신민당과 사회당이 남아 가까스로 과반을 넘기는 상황에 처했고, 정치적 불안은 더욱 커졌다. 사회당도 ERT 폐쇄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민주좌파당의 연정 탈퇴로 출범 1년 만에 위기를 맞은 사마라스 총리는 24일 베니젤로스 사회당 당수를 외무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애썼다. 사회당은 ERT 폐쇄에 반발했지만 연정 붕괴로 조기총선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회당이 ERT 구조조정을 비롯한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아 불안하게 유지된 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행정법원은 6월

17일 정부가 ERT의 방송신호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ERT 송출을 중단한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재정장관과

미디어 담당 장관을 상대로 “새로운 방송국이 만들어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까지 공영방송에 의한 방송 송출과 인터넷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ERT 구조조정 추진에 이용하는 모양새다. 터키 일간 휴리에트데일리뉴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그리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ERT 폐쇄 및 새로운 공영방송 설립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ERT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유럽의회와 법원, 유럽방송연맹, 유럽의 공영방송 대표들이 강한 반대의 뜻을 표하자 채권단인 EU와 영국을 비롯한 IMF 등은 ERT 폐쇄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며 진땀을 흘렸다. IMF 제리 라이스 대변인은 “ERT 폐쇄 조치는 그리스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IMF는 긴축정책에 있어 특정 공기업의 구조조정까지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RT 폐쇄를 촉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 정부의 공공부문 관련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유럽의 민주주의와 가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공 서비스인 방송의 역할이 핵심적이고 이는 어떠한 경제적 상황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RT 폐쇄, 불가피한 조치인가,

언론 탄압의 의도인가?

그렇다면 ERT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리스 정부의 ERT 폐쇄 결정은 재정 감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대다수 공영방송들이 공공성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 수익성이 낮아 적자를 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는 국제채권단으로

부터 공공부문 인력 감축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어, ERT 폐쇄 조치는 구제금융을 위한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ERT 소속 직원들은 ERT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첫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해 ‘언론 탄압’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ERT가 공영방송임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상당히 내왔으며, 일각에서는 ERT가 사마라스 총리와 집권 신민당보다 사회당 등 다른 당을 지지하는 보도를 다수 내보내 ‘미운 털’이 박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폐쇄된 ERT 조정실엔 “혁명은 방송되지 않습니다”란 문구가 붙여져 있다.

(출처 : the guardian, 「Greece's state broadcaster defies government closure; RBS boss in shock resignation – as it happened」, 2013년 6월 12일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는 그동안 ERT를 ‘개혁’하겠다고 수차례 메스를 댔지만 ERT 강성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디코 글루 대변인은 “그동안 ERT 기술자들을 방송국 두 건물 간 재배치하는 것도 저지당하는 게 현실이었다”고 밝혔다.

그리스의 미디어 전문가 조지 플레이오스 교수는 “사마라스 정부가 ERT 폐쇄를 원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문

제”라며 “정부가 ERT의 사장과 특별 자문관을 직접 배치했지만 (ERT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ERT 직원들은 1년 전 사마라스 정부와 새로운 임원들의 과도한 프로그램 요구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이 같은 시위는 사마라스 총리의 중국 방문 및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그리스 방문 등 중요한 행사 기간에도 이어져 보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ERT 직원들은 또 반정부적 내용의 가디언 보도를 전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고당했던 ERT의 유명 앵커 2명을 다시 채용하라는 ‘압력’을 넣기도 했다.

ERT 폐쇄 조치에 대해 민영 방송사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정치적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플레이오스 교수는 “ERT 폐쇄 조치 뒤에는 극단적 보수주의인 사마라스 총리와 그의 정부, 민영 미디어 소유주들, 그리고 파시즘적 극우 정당인 황금새벽당 간 동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은 민주적이고 관대한 조직 (ERT)이 계속 운영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RT 노동조합은 11일 오후 폐쇄 발표 직후 “정부가 채권단의 요구에 따르려고 공영방송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국 점거 시위에 들어갔다.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지만 회사 건물에서 나가

지 않고 연좌 농성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소속 직원들은 “ERT가 원상 복구 될 때까지 점거 시위를 벌일 것”이라며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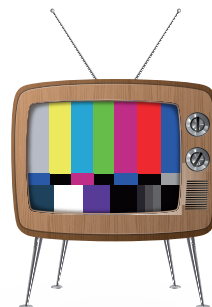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는 ERT 직원들
(출처 : London Evening Standard, 「Crisis as Greek premier pulls the plug on state broadcasters」, 2013년 6월 12일자)

ERT의 저항과 NERIT의 등장

해고된 ERT 직원들은 경찰의 무력 조치로 화면 송출은 막혔지만 유럽방송연맹 (EBU)의 도움을 받아 자체 인터넷 방송을 제작하는 등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EBU는 자체 위성 시스템과 인터넷 망을 ERT 측에 제공, ERT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그리스와 유럽 등에 내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식 채널이 막힌 상황에서 이른바 ‘해적방송’을 하게 된 것이다. ERT 한 기자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익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내는 것”이라며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악조건 속에서도 이어진 ERT 해고 직원들의 자체 방송 송출은 이례적으로 대





NERIT 시험방송 화면(출처 : Greek Reporter, 「Greek Public Television Is On Air」, 2013년 7월 10일자)

중의 큰 지지를 받았다. 일반 시민 수천 명이 ERT 건물 앞에 텐트를 치고 시위에 동참했으며, 지식인과 예술가, 음악인 등이 무료 공연과 쇼를 하며 ERT 직원들의 항의 방송에 지지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ERT는 자체 스튜디오를 열어 노동자 권리와 언론의 자유, 이민 문제, 공공 의료, 신자유주의 정치 등 민감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ERT의 이 같은 새로운 시도는 대중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시청률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ERT 조직이 방만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기습적 폐쇄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정부는 ERT 폐

쇄 결정을 발표한 지 거의 한 달 만인 7월 10일 새로운 공영방송 NERIT에 대한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기존 ERT 채널에서 시험방송이 시작되었으며 국영TV 로고가 왼쪽 상단에 나타났다.

정부와 ERT의 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판테리스 카프시스 그리스 문화장관은 이날 “몇 시간 내 시험방송용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방송될 것”이라고 밝혔고, 오후 9시부터 시험방송이 시작됐다. 카프시스 장관은 “새 방송 채널을 위한 인력 채용도 이뤄질 것”이라며 해고된 ERT 직원 중 상당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그동안 1,000명 안팎의 인력 충원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ERT 노조는 새 방송사 출범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으며, 그리스 언론 노조도 이를 거부하는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험방송을 시작하고 새로운 인력 충원을 예고하면서 ERT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점거 시위를 보도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
(출처 : The National Herald, 「Greece To Close, Re-
Open National Broadcaster ERT」,
2013년 9월 5일자)

언론인 출신인 카프시스 장관은 “새로운 공영방송은 비용이 덜 들고 인력도 적을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며 “BBC 모델과 감독기구 방식을 적용,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막고 새로운 방송인들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방송을 위한 채용은 ERT 노조가 점거 농성을 끝내야 비로소 이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ERT 기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반대하고 있다. 한 기자는 “시험방송 개시는 불법적 조치이며 ERT를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다른 기자는 “정부가 개혁 운운하지만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에 남기보다 다른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RT 직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배경에는 정부가 새 공영방송을 하겠다고 새로운 직원들을 뽑겠다고 발표하면서, ERT 해고 직원들로부터 새로운 자리에 대한 지원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600여 명 가운데 1,000~1,200명 정도를 선별해서 재배치한다는 계획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직원들은 “입맛에 맞는 인력만 다시 채용하겠다는 속셈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키워 언론을 길들이려는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와 ERT 간의 첨예한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새로운 방송국 개설과 신규직원 채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밝힌 대로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새 방송국을 운영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ERT 폐쇄 사태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리스 정부가 유일한 공영방송 ERT를 구제금융의 희생양으로 삼아 폐쇄시키는 강수를 둬으로써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공영방송 등 언론 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갖고 변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국제사회의 감시와 관심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